

김 지사, 잼버리 첫날 현장 속으로

본격 입영한 해외 스카우트 대원 직접 환영… 야영지 등 부대시설·종합상황실 방문 현장 점검 나서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일 김관영 지사가 입영하는 참가자를 환영하고 잼버리 야영지와 회장실, 편의시설 등 직접 현장을 누비며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사전관광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입영한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영지를 방문해 “5년간 내실있게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해외 스카우트 대원을 직접 “대회 주제인 Draw Your Dream처럼 대원들의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등 만반의 준비를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일부 참수된 애영지의 복구상황과, 회장실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참가대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강우시 치질 없는 설치와 침수 대비를 지시했다.

전북도는 대회기간 중 별다른 강우 예보는 있지만 급작스런 폭우에 대비해 추가 간이펌프 시설 100개소 설치, 배수로 추가설치 등 폭우로 인한 애영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시작된 1일 김관영 도지사가 입영하는 참가자들을 만나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침수대책을 준비해 왔다

대용 현장에서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상황실 관계자들에게 대회 “성공을 위해서 조직위와 정부부처,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민·이민자 공존·협력… 함께 성장하는 전북

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5대 정책목표·14개 추진전략 세부과제 등 제시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외국인주민 유입 및 정착지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고, 도치원의 외국인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문가, 연구진, 분야별 외국인 소관부서와 함께 ‘전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도는 3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도내 외국인현황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분야에 대한 도자원의 최초 용역이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전북 외국인 현황분석, 외국인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이 이뤄졌고 이후 ‘지역민과 이민자’의 공존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으로 5대 분야별 정책목표·14개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 등이 제시됐다.

보고회에는 설동훈 전북대 교수, 김 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강성록 출입국외국인관리소장,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도 참석하여 각 분야별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은 “외국인주민 또한 수도권 집중화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양질 일자리 이후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 보육이다”라며, 해당 정책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재 외국인 부서가 산재되어 있고 데이터가 부족한 정책 조기인 민족 우리도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며 “세부과제 제시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자료가 될 것 같다. 앞으로 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도 맞춤형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1면에 이어…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막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가하는 회원국들이 자기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고 다양한 스카우트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잼버리 월드지역에서 운영된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세시하는 빙곤,

평화, 환경 등 17개 영역의 지속기능

발전 목표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번기문

SDG Maal’, 1991년 강원도 고성잼버리의 추억과 회상을 위한 REUNION in 2023’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20개 국가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푸드하우스와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대표하는 9개 종교관도 설치된다.

이외에 국내 홍보전시관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대한민국관’,

‘전라북도관’, ‘국립공원 체험관’ 등도 설치된다.

이번 세계잼버리에는 각계의 인사들이 방문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의 ‘생존왕’ 베어 그릴스가 개영암에 방문하고, 차기 개최국인 폴란드 대통령도 새만금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최초행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이후 개최되는 첫 대규모 청

소년 국제행사인 만큼 청소년들이 좌절과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의 꿈을 그리는 회복탄력성을 키우자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행사가 참가 청소년 모두 함께 마음껏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2023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군산대·원광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표현력·웃음코칭

스피치 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최한 강연을 합니다.

스피치 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과목에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을 교정(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이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웃음코칭(주)	이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화), 스피치지도사(수)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를 방문한 이탈리아 잼버리 대원들.

내수면 첨단 스마트양식기술 견학

이탈리아 잼버리 대원들 20명,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방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이탈리아 잼버리대원 20여명이 지난달 31일 원주군 대야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방문해 첨단 스마트양식기술을 견학했다.

이탈리아 참가대원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전시하고 있는 한국의 토종 물고기, 새우 등 수계생물을 관찰했으며, 연구소에서는 참가대원들에게 환경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토종어종 종자생산 어미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생산동 및 노지 사육지 주요시설을 안내했으며,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동에서 운영 중인 첨단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흰디자우 양식 시험 연구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서재희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탈리아 잼버리 대원들이 민물고기 연구센터 통해 전북이 선도하고 있는 내수면 첨단 스마트양식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략작물직불사업 호우피해 농가 구제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 완화

전북도는 2023년도부터 첫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사업이 집중호우로 인해 전략작물(논콩, 가루쌀, 죽大豆)의 재해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올해에 한해 재해피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은 △재피증,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임상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지연체해 피해 등록신청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시군(읍면동)공무원들이 피해상황을 확인해 상당부분은 예상이다.

/김재훈 기자

도, 위기임산부에 체계적 서비스 지원

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

통합상담창구를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이 연대해 미혼모와 아동,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위기임산부가 시간·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표번호는 031-666-3136이다.

또한 SNS·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위기임산부에게 전문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의체에는 미혼모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주시건강기정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소, 전라

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

통합상담창구를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이 연대해 미혼모와 아동, 위기임

임산부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보 접근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정보사각지대 미혼모 및 위기임산부에게 정부지원 혜택은 물론 지자체 및 민간지원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연계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